

□ 남·북한 대학교육
교류방안 모색을 위한
세미나 개최

대교협은 4월 26일 여의도 63빌딩 국제회의장에서 남·북한 대학교육 교류방안 모색을 위한 세미나를 열고, 남·북한 대학간 학술교류 방안과 남·북한 대학총장 회담 추진에 대한 기본 방향과 문제점 등을 진지하게 논의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개회사: 김민하(평화통일교육연구위원회 위원장)
△ 치사: 권오기(부총리 겸 통일원 장관) △ 주제발표 I: 남·북한 대학간 학술교류 방안: 박재규(경남대 총장) △ 토론: 정범진(성균관대 총장), 정용석(단국대 교수), 여영무(동북아정보문화센터 고문) △ 주제발표 II: 남·북한 대학총장 회담 추진 방안: 박홍(서강대 총장) △ 토론: 민병천(서경대 총장), 현승일(국민대 총장), 김일무(북한문제조사연구소 연구위원)

□ '97년도 대학재정
국고보조 신청 계획

대교협은 4월 26일 제79차 이사회를 열고, '97년도 대학교육 예산 총액을 학생수 비례로 배정하기 위하여 교육부 예산의 13.2% 수준인 24,268억 원으로 확충될 수 있

도록 정부와 국회 등 관계 기관에 건의하기로 하였다. 이는 '96년의 16,841억 원보다 45% 증액되는 7,427억 원을 추가 책정한 것이다.

이 중 국립대학 예산은 시설 및 기자재 확충을 위하여 현재 3,742억 원의 1.5배인 5,613억 원으로 증액되도록 하며, 사립대학에 대하여는 현행 사업 예산지원 규모 외에 경상적 경비의 10%에 해당하는 2,766억 원을 추가 책정하여 각 대학의 학생수 규모에 비례하여 배정하고, 나머지 2,790억 원은 대학의 연구능력 강화, 학생 장학금 지원 등에 계상할 예정이다.

□ 보고서 및 자료 발간

● 새 입시제도에 의한 '97학년도 대학입학 전형계획 주요사항(자료 96-1-133)

이 자료는 정부의 5·31 교육개혁에 따른 새 대학입학 전형제도 시행 기본계획에 의거하여 대학별로 수립한 '97학년도 입학 전형계획 중 주요사항을 수합하여 집계·분석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대학별로 전형 유형, 선발 일정, 모집 인원, 전형 요소 및 반영 비율, 수험능력시험 가중치, 종합생활기록부의 반영, 수능 성적, 면

접·구술고사, 모집인원 유동제 실시 등을 담고 있다.

● 1995년도 대학종합평가 종합보고서(평가보고 95-119-624)

이 보고서는 대교협이 1995년도에 23개 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평가의 결과를 정리한 것으로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대학 종합평가인정제의 개요(목적, 평가기준, 조직, 활용) △ '95년도 대학 종합평가인정제 추진 과정(1단계: 평가 신청과 대상 대학의 선정, 2단계: 대학별 자체평가연구의 수행, 3단계: 대학 종합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서면평가 및 현지방문평가의 실시, 4단계: 인정여부의 판정 및 판정결과와 공표, 5단계: 재평가인정) △ 대학 종합평가 인정 결과(평가 결과; ○ 학부: 교육/연구/사회봉사/교수/시설·설비/재정·경영 영역, ○ 대학원: 교육과정/수업 및 논문 지도/교수/시설·설비/재정·경영, 1995년도 대학종합평가 인정결과; 대학종합평가 인정기준, 1995년도 대학 종합평가 인정 결과) △ 종합 및 결론(우수한 부분, 개선할 부분) △ 부록: 1995년도 대학종합평가 실시 23개 대학의 우수 한 부분 및 개선할 부분